



사진 / 한국관광공사 제공

Competitive Medical Tourism Market

의료관광 글로벌 춘추전국시대

의료관광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면서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특히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진료와 치료가 빨리 이뤄지고 선진국 수준의 의료 기술을 갖춘 아시아 국가들이 주요 목적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2009년부터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해 의료관광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한국도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태국,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고 있다. 전 세계 의료관광객을 놓고 벌이는 각국의 경쟁 현황과 한국의 의료관광 실태를 알아본다. 글 임동근 기자



한국관광공사는 서울 중구 다동 사옥에 의료관광 정보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 주요 의료관광국 현황

국가	의료관광객 수	주요 분야	강점	JCI 인증 병원 수
태국	220만 명 (2011)	성형, 라식, 성전환, 대체의학, 치과	높은 의료 수준, 저렴한 비용, 빠른 서비스	45(2013)
싱가포르	72만5천 명 (2010)	혈액 질환, 심장과 간 이식	높은 의료 수준, 영어 공용, 서구적인 문화와 사회 규범	22(2013)
말레이시아	67만1천 명 (2012)	건강검진, 성형, 스파, 지압, 반시요법	영어 의사소통, 저렴한 비용, 현대식 보건시설과 훈련된 의료진, 광범위한 진단과 치료 자원	8(2012)
인도	73만1천 명 (2010)	심장절개수술, 관절치환수술, 성형, 아유르 베다, 요가	저렴한 비용, 높은 의료 수준, 영어 공용	11(2009)
한국	15만 명(2012)	암 치료, 건강검진, 심혈관 질환, 성형, 치과	높은 의료 수준, 저렴한 비용, 빠른 서비스	39(2013)

출처: 한국관광공사 자료 인용

“지금 세계인들이 더 저렴하고 빠르며 수준 높은 치료를 받기 위해 해외로 떠나고 있다.”

전 세계 5천600만 명이 치료 위해 떠난다

세계인들이 치료를 위해 해외여행에 나서고 있다. 컨설팅업체 매킨지 앤드 컴퍼니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 세계 의료관광 시장 규모는 1천억 달러로 추산된다. 2004년 400억 달러에서 2.5배나 증가한 수치다. 또 의료관광객 수는 2005년 1천900만 명에서 2012년 5천600만 명으로 세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병원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더 저렴하고 빠르면서도 수준 높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다. 현재 미국인은 자국의 높은 의료비 때문에 중남미 국가를 찾고, 캐나다인과 영국인은 의료 서비스 공급 부족으로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다른 나라로 간다. 또 중국인이나 러시아인은 수준 높은 치료를 위해 해외로 떠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의 경우 치료 대기 시간은 심장이나 척추 수술이 9~11개월, 뇌종양이 6~8개월인 것으로 보고됐다. 2008년 매킨지의 조사에 따

르면 세계인들은 의료관광을 하는 이유를 ▲선진화된 치료 기술 ▲더 나은 의료 서비스 ▲빠른 치료 ▲낮은 치료비 등의 순으로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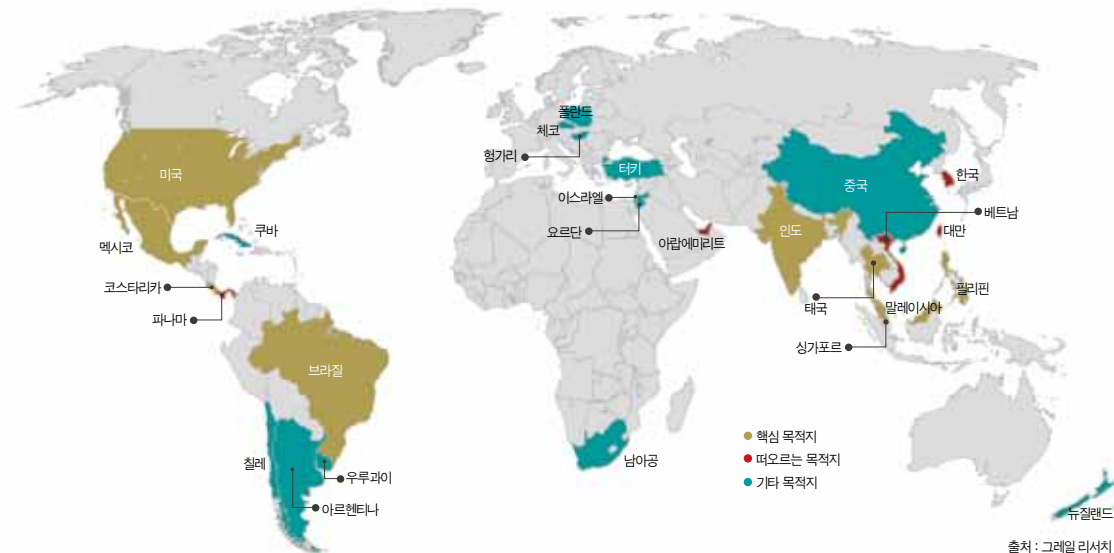
세계 의료관광의 허브 '아시아'

세계인이 치료를 위해 주로 찾는 나라는 어디일까? 미국의 글로벌 전략 연구소인 그레일 리서치는 2009년 의료관광 핵심 목적지로 미국, 브라질, 코스타리카, 인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꼽았고,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대만, 아랍에미리트는 떠오르는 의료관광 목적지로 분류했다. 또 폴란드와 체코, 헝가리, 터키, 이스라엘, 요르단, 남아공, 중국, 뉴질랜드,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쿠비를 기타 목적지로 선정했다.

의료관광에서 가장 큰 특징은 핵심 또는 떠오르는 목적지의 65% 이상이 아시아 국가라는 점이다. 선진국에 떨어지지 않는 의료 기술에 빠르

의료관광 주요 목적지

미국의 전략 연구소인 그레일 리서치는 2009년 한국을 떠오르는 의료관광 목적지로 분류했다. 핵심 목적지는 미국, 브라질, 코스타리카, 인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선정됐다.



출처: 그레일 리서치



사진 / 한국관광공사 제공

세계 의료관광의 중심지는 아시아다. 선진국에 떨어지지 않는 의료 기술에 빠르고 값싼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태국,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1위 국가인 태국은 성형과 라식, 성전환 분야, 싱가포르는 혈액 질환과 심장·간 이식, 말레이시아는 건강검진, 인도는 심장절개수술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전 세계 환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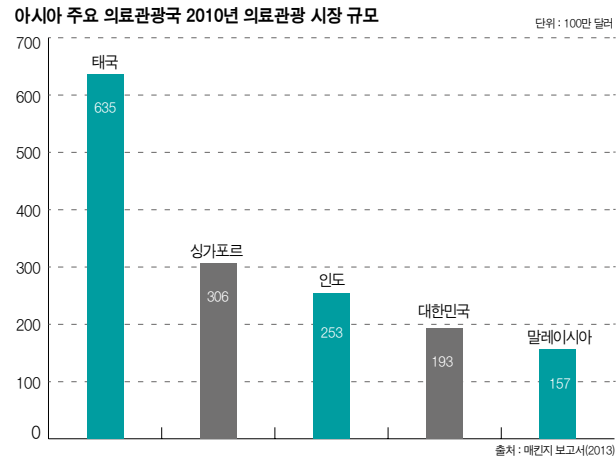
사진 / 한국관광공사 제공

고 값싼 치료라는 의료관광객의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들은 '아시아의 건강 수도'(태국), '싱가포르 메디신', '하이 테크 힐링'(인도) 등을 모토로 지구촌의 의료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를 없애는 등 경쟁적으로 의료관광 허브의 꿈을 키우고 있다.

아시아 허브 위한 총성 없는 전쟁

태국은 의료 서비스, 헬스케어 서비스, 약초 상품 등 세 가지 영역에 중점을 두고 '아시아의 건강 수도'로 발전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태국은 선진국 수준의 높은 의료 서비스, 저렴한 치료비, 빠른 치료를 강점으로 내세운다. 특히 성형과 라식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싼 것으로 알려졌고, 성전환 수술은 최고로 평가받는다. 또 의료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비자 면제 협정 대상국 이외 국적 환자에게 공항도착 비자를 발급해 주고,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일주일내 한 번씩 병원으로 출장을 나가 현장에서 비자 연장 업무를 하기도 한다.

싱가포르는 높은 의료 수준과 영어 사용, 서구적인 문화와 사회적 규범, 다수의 JCI 병원(미국의 병원 인증 제도) 등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치료를 위한 장기 비자 발급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싱가포르관광청은 4개 국어(힌디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로 주요 병원과 의료관광 상품을 안내하는 포털 사이트(www.singaporemedicine.com)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방한 외국인 환자 국적과 증가율

단위: 명, %

국적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중국	4,725	12,789	19,222	31,472	88.2
미국	13,976	21,338	27,529	30,196	29.3
일본	12,997	11,035	22,491	18,462	12.4
러시아	1,758	5,098	9,651	16,325	110.2
몽골	850	1,860	3,266	8,347	114.1
베트남	327	921	1,336	2,197	88.7
필리핀	356	957	1,178	1,767	70.6
카자흐스탄	128	346	732	1,626	133.3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주요 결과'

“한국은 아시아의 떠오르는 의료관광국이다. 2009년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2012년까지 성장률은 37.3%에 이른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의 후발 주자이지만 의료관광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해외여행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면 무료로 진찰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다는 점이 강점이다. 저렴한 치료비와 수준 높은 서비스, 훈련된 의료진과 현대화된 시설은 기본이다. 말레이시아를 찾는 의료관광 인구는 2003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 23.1%를 기록하고 있다. 의료관광객 1인당 지출액도 2003년 150달러에서 2008년 240달러로 급속하게 늘었다. 마지막으로 인도는 저렴한 진료비와 짧은 대기 시간, 선진 의료 기술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특히 수술비는 주요 선진국의 8분의 1 정도로, 태국보다도 30% 이상 저렴하다. 또 영어로 의사소통이 자유롭다. 한편 인도 정부는 의료관광 관련 업체에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입국에서 출국까지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시아의 떠오르는 의료관광국 '한국'

한국은 2009년부터 의료관광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해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의료관광객은 2009년 6만여 명에서 2012년 15만9천 464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했고, 진료 수입은 547억 원에서 2천391억 원으로 네 배 이상 늘었다. 연평균 성장률은 무려 37.3%이다. 이에 따라 건강 관련 여행 수지도 2011년부터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의 떠오르는 의료관광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에는 어느 나라 사람이 많이 방문하고 있을까?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의료관광객은 국적별로 중국(24%), 미국(23%), 일본(14.1%), 러시아(12.4%), 몽골(6.4%) 순이었다. 특히 2009~2012년 연평균 증가율은 방한 의료관광을 집중 홍보한 아랍에미리트(171.7%), 카자흐스탄(133.3%), 몽골(114.1%), 러시아(110.2%)가 높았고, 중국과 베트남도 88.2%와 88.7%로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일본은 독도 문제를 둘러싼 긴장된 한일 관계로 인해 방문객이 감소해 2012년 의료관광객이 전년에 비해 17.9% 줄어들었고, 비중도 22.1%에서 14.1%로 하락했다. 2012년 기준 연간 100명 이상이 찾는 나라는 49개국이다.

피부과·성형외과 중심에서 분야 다양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2년 외국인 환자는 내과(22.3%), 검



사진 / 한국관광공사 제공

방한 의료관광은 전체적으로 환자 수가 늘어났고, 기존 피부과·성형외과 중심에서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다.

진센터(11.6%), 피부과(7.9%), 성형외과(7.6%), 산부인과(5.3%), 정형외과(4.7%), 한의과(4.6%)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면서 진료과별로 환자 수가 늘어났고, 연평균 증가율은 46.6%에 달했다. 주요 진료과별 외국인 환자 비중을 보면 기존에 상당수를 차지했던 피부과 환자는 2009년 9.3%에서 7.9%로 줄었고, 성형외과는 4.4%에서 7.6%로 늘어났다. 특히 한의과는 2009년 2.9%에서 2010년 4.1%, 2011년 6.3%, 2012년 4.6%로 다소 증가했다. 한편 기타 진료과의 비율이 점차 증가해 일부 진료과에 집중되는 모습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입원 환자 수는 2009년 3천915명(6.5%)에서 2012년 1만4천 629명(9.4%)으로 늘어났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55.2%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의 최첨단 의료 기술이 외국인 환자에게 신뢰받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특히 암 치료의 경우 5년 후 생존율은 한국이 67%로 미국(26.9%)에 비해 높으며, 양성자 치료 비용도 미국(2억~3억 원)의 4분의 1 수준인 5천만 원 선에서 이뤄지고 있다.

우수한 의료 기술에 점수 높아

외국인들이 치료를 위해 한국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관광공사가 2012년 방한 의료관광객 1천3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의료 및 관광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우수한 의료 기술 수준이 47.1%로 가장 높았고, 한국 의료기관/의료진의 인지도(37.8%), 최첨단 의료 장비와 시설이 뒤를 이었다.

특히 중국(42.6%), 러시아(63.9%), 중동 지역(44.7%) 의료관광객에게

아시아 주요 의료관광국 종합 건강검진 가격 비교

병원 이름	한국 K 병원		싱가포르 R 병원		태국 B 병원	
상품명	프리미엄(남)	프리미엄(여)	플래티늄(남)	플래티늄(여)	R3(남)	R3(여)
검진항목 개수	129	140	102	107	39	40
검진 가격(만 원)	460	490	696.8	790.9	78.2	85

출처: 한국관광공사 '2010 의료관광 실무 매뉴얼'



방한 의료관광객은 한국을 찾은 이유로 의료 기술을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중국, 러시아, 중동 지역 사람들에게 의료 수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

사진 / 한국관광공사 제공

“방한 의료관광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그러나 외국어 서비스와 차별화된 관광지 등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관광객, '쇼핑' 가장 많이 해

의료관광객은 진료나 치료 이외에 어떤 관광 활동을 할까?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의료관광객 중 56.9%가 관광 활동을 했는데, 쇼핑(72.2%)을 가장 많이 했다. 이어 역사/문화 유적 방문(42.1%), 식도락 관광(37.4%), 자연관광 및 탐사(37.2%), 유희/오락(26.4%), 휴식/휴양(25.7%), 뷰티 관광(헤어, 메이크업, 네일 케어 등·24.8%) 순으로 활동을 많이 했다. 의료관광객 중 3분의 1 이상은 치료만을 위해 방문했다는 이야기다.

한편 의료관광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다. 러시아인, 중동인, 미국인의 만족도가 높았고, 중국인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응답자들은 '관광 관련 직원 친절도'에 가장 크게 만족했으나 '의료기관과 주변 관광자원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중동 의료관광객은 '식당과 음식'에 대해 가장 불만족스러워 했다.

지인이나 친척에게 추천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87.8%가 '추천' 의사를 밝혔고, 특히 종합병원 이용자들은 92.6%로 다른 시설에 비해 높았다. 추천 의향은 러시아, 몽골, 중동, 동남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진료과별로는 건강검진에 대한 추천 의사가 가장 많았다.

의료 인프라와 기술 뛰어나지만 관광은 최하

한국은 아직 떠오르는 의료관광국으로 분류되며, 성장성도 낮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산업연구원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과 정책과제'(201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의료관광산업 종합 경쟁력은

서 한국의 의료 수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 일본인은 관광, 쇼핑, 의료 등 복합 서비스가 가능한 점을 가장 높게 꼽았고, 미국과 몽골, 동남아 지역 관광객은 한국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에 대한 인지도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또 러시아인은 지리적 근접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주요 진료과별 외국인 환자 현황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내과	18,398(28.5)	23,632(23.3)	34,330(22.2)	45,368(22.3)	35.1
검진센터	8,980(13.9)	13,272(13.1)	19,894(12.9)	23,508(11.6)	37.8
피부과	6,015(9.3)	9,579(9.4)	12,978(8.4)	16,132(7.9)	38.9
성형외과	2,851(4.4)	4,708(4.6)	10,387(6.7)	15,428(7.6)	75.6
산부인과	3,965(6.2)	5,656(5.6)	7,568(4.9)	10,831(5.3)	39.8
정형외과	3,196(5.0)	4,975(4.9)	6,876(4.4)	9,501(4.7)	43.8
한의학	1,897(2.9)	4,191(4.1)	9,793(6.3)	9,366(4.6)	70.3
안과	1,921(3.0)	4,507(4.4)	5,821(3.8)	7,741(3.8)	59.1
아비인후과	2,484(3.9)	3,549(3.5)	5,080(3.3)	7,244(3.6)	42.9
치과	2,032(3.2)	3,828(3.8)	5,220(3.4)	6,762(3.3)	49.3
기타	12,725(19.7)	23,695(23.3)	36,869(23.7)	51,182(25.3)	49.3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주요 결과, ()는 전체 외국인 환자 중 진료과 비율



방한 의료관광객은 진료와 치료 이외에 쇼핑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달리 할 만한 관광 활동을 찾지 못한 탓이다. 아시아의 의료관광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료 관련 기술 이외에 다양한 관광 활동에 대한 개발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OECD 34개국 중 19위를 기록했다. 기술과 인프라 수준(13위)은 높은 반면 시장 성장성(24위)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과 인프라 부문을 보면 한국의 인프라는 2위, 의료 기술은 9위를 기록했지만 인적자원은 최하위 수준인 31위였다. 인구당 의료인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는 뜻이다. 또 성장성을 보면 의료 서비스는 4위 인 반면 관광산업지수는 33위로 나타났다. 치료도 하고 관광도 하는 의료관광의 원래 의미에서 볼 때 관광 활동으로 할 것이 별로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료 및 관광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도 가장 개선이 시급한 사항은 '편리한 외국어 서비스', '고급 병실', '차별화된 관광지'로 조사돼 이를 뒷받침했다.

전 세계 의료관광 인구는 약 10억 명의 여행객 중 5.6%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의료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보

고서에서 "2012년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수입은 1억4천650만 달러로 5년간 2.1배가량 증가했지만 1천억 달러 세계 의료관광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0.15%)"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광으로 연간 30억3천2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미국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과 장비 등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이 시급한 이유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의료관광객을 2014년 25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한은지 의료관광사업단 대리는 "의료관광객이 관광 활동을 몰라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병원 연계 관광 코스를 만들어 홍보하고, '스키+치료', '공연+치료' 등 관광과 직접 관련된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등 방한 의료관광객을 늘리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Y

의료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한국을 선택한 이유(중복 응답)

구분	우수한 의료 기술 수준	한국 의료기관 의료진의 인지도	최첨단 의료 장비 및 시설	세계화된 의료 서비스	관광, 쇼핑, 의료 등 복합 서비스	지리적 근접성	기타
응답률	47.1	37.8	21.5	16.6	16.2	14.2	5.1

출처: 한국관광공사 '2012년 한국 의료 및 관광서비스 만족도 조사'

방한 의료관광객 관광 활동 유형(중복 응답)

관광 활동	쇼핑	역사/문화 유적 방문	식도락관광	자연관광 및 탐사	유희/오락	휴식/휴양	뷰티 관광	온천/스파	공연, 전시 관람	레저 스포츠	연수/교육/연구	기타
비율	72.7	42.1	37.4	37.2	26.4	25.7	24.8	14.4	13.2	12.6	7.3	2.6

출처: 한국관광공사 '2012년 한국 의료 및 관광서비스 만족도 조사'